

보성 세계차엑스포 온택트 '팡파르'

17일부터 나흘간...홈페이지·유튜브로 생중계 프로그램·이벤트 다채...홈쇼핑 24시간 운영도

보성군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온택트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보성군은 북재와 대한다원에 행사장과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북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차를 뽑는 '세계차품평대회'와 '대한민국티블렌딩대회' 등이 열리며 전문 심사위원과 행사

진행요원 등 최소 인원으로도 진행된다. 대한다원에서는 '보성차 랜선골든벨'과 추가열·유지광이 출연하는 '차밭 힐링토크', '명인이 만드는 차 음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 관람을 제외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보성차 랜선 골든벨은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진행되며 17일부터 19일까지 3회로 나눠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50만원 상

당의 태블릿PC가 상품으로 지급되며, 참가 신청은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엑스포 전기간 동안 보성차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합내라 대한민국 보성차 50% 특별할인' 홈쇼핑은 생산자가 직접 출연해 제품을 설명하면서 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홈쇼핑은 24시간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상시 방영된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난 8일 북재 보성차 50% 특별할인 홈쇼핑 녹화현장에서 BS삼총사와 함께 보성차를 소개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곡성심청상품권 10월까지 10% 할인 구매한도 1천만원...1만원 캐시백도

곡성군이 추석을 맞아 곡성심청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할인을 통해 10월31일까지 개인은 10% 저렴한 가격으로 심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모두 가능하며 1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법인은 상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반기에 1,000만원이다. 또한 1일 10만원 이상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영수증을 챙겨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추석 명절 특별할인 종료 이후에도 연말까지 계속 10% 할인

고흥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

서한문 보내 협조 요청 계획

고흥군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고향방문 자제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성객 고향 방문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정정지역에 결맞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귀성객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의 향우들에게 고향 부모형제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정정 고흥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관외 출타 자제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역 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고흥군은 매년 추석연휴 기간 중 평균 13만여명의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며 "이번 추석연휴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고향방문 자제에 항우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추석연휴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동부취재본부=진종연 기자



유근기 곡성군수가 최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댐방류로 인한 수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섬진강댐 급방류 방지대책 주문 수자원공사 "댐 관리매뉴얼 개정 검토"

곡성군이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방문해 댐 방류로 인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곡성군은 지난날 섬진강댐 급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다. 과거에도 폭우에 댐 방류량 증가까지 겹쳐 수해를 입은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에 곡성군은 이러한 반복적인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섬진강댐의 기능과 관리매뉴얼을 홍수 통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곡성군은 섬진강댐이 담수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홍수 통제능력이 약화돼 이번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댐 방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곡성군은 평상시에 하천 유지수를 일정하게 방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도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곡성군의 요구에 댐 관리매뉴얼 개정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광양, 광영·의암지구에 로컬푸드직매장 12월 개장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2020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 공모에 선정돼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총 연면적 997㎡, 직매장 530㎡ 규모로 신축된다. 현재 광양시에는 광양읍권에만 4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동광

양권역에 동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되면 출하 농가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농협에서도 직매장 운영 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개점이 잇따르고 있다. 동광양농협 성황정 로컬푸드직매장 신규 개장을 계획중이며 동광양농협 중마점과 제철점은 소규모 직매장을 열어 지역소비자들이 만나 호응을 얻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보성군의회 임시회 14일까지

보성군의회가 지난 8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보성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도 활동했으며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주)비즈케어, 광양시에 열화상카메라 기부

(주)비즈케어가 최근 고화질의 얼굴 사진과 체온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580만원 상당의 방역용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세트를 광양시에 전달했다. 비즈케어 이정민 대표는 "광양은 여수와 함께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핵심 도시로서 코로나19 방역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 여파가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을 통해 광양시의 방역 활동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주)비즈케어는 지역의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으로 인체 측정용 적외선카메라, 소방용 적외선카메라, 보안용 IP카메라 등 비전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여수 돌산읍 자생단체·주민, 꽃밭 조성

여수시 돌산읍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마이카 화분 100개소와 관광지 주변 7개소의 자투리땅 1만2,250㎡에 가을맞이 꽃 1만 600본을 최근 심었다. 이번 꽃밭 조성을 위해 돌산읍 이상 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자생단체와 주민 7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여수시 조용연 돌산읍장은 "다가오는 추서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시민들과 돌산읍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싱그러운 꽃이 새롭게 피는 모습을 보며 코로나19로 받은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양 옥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 봉사

광양시 옥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난 8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관공서와 초·중학교, 5일 시장, 상가 등을 대상으로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 봉사활동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으며, 옥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5명과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조현옥 시의원이 함께 방역 봉사에 힘을 모았다. 광양시 서정옥 옥곡면장은 "방역 봉사활동이 안전하고 청정한 옥곡면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